

제16차 전국시·도자치경찰위원장협의회 회의 결과

□ 회의 개요

- 일시·장소 : '23. 3. 17.(금) 14:00~15:08 Zoom 영상회의
- 참석 : 전국 시·도자치경찰위원장
 - ※ 인천, 대전, 경기남부, 전북, 전남 위원장 불참(사무국장 대리참석)
- 주요 내용
 - － 협의회 안건(4건)
 - ① 자치경찰위원회 파견경찰관 정원화 대책
 - ② 자치경찰제 정책세미나('23.3.3.) 관련 쟁점 논의
 - ③ 자치경찰 세미나(한국행정연구원 주최) 안내
 - ④ (경남 제안) 시·도자치경찰위원회 치안시책 우수사례집 제작
 - － 위원회별 주요 사업 동향(3건)
 - ① (대구) 제3기 폴리스 틴·키즈 운영
 - ② (경기북부) 자치경찰 청년 서포터즈 운영
 - ③ (충북) 교통 유관기관 간담회 개최
 - － 기타 자유 토론

□ 회의 결과

< 회의 안건 논의 >

- (서울 김학배 위원장<협의회장>) 첫 번째 안건으로 파견경찰관 정원화 문제, 지난 1년간 노력했음에도 불구하고, '23년 파견기간만 6개월 연장. 6월이 곧 다가옴. 경찰청에서는 각 시도자치경찰 위원회에서 인력을 재산정하면 수시직제로 요구할 예정임. 다음 주 월요일까지 양식을 보내드리겠음. 걱정 인력을 한 번 더 검토하여 3월 31일까지 제출해주기 바람. 각 위원회에서 요청한 내용을 그대로 요구하겠음

- **(충북 남기현 위원장)** 파견 연장과 정원화를 동시에 추진하다 보면, 인력이 축소될 경우 복귀해야 하는 직원들의 보직 문제 발생. 파견기간 연장을 우선적으로 추진해야 한다는 것이 파견 경찰관들의 의견임
- ➡ **(서울 김학배 위원장)** 지금까지 계속 추진해 온 문제. 더 양보해야 할 내용 없음. 파견은 계속 연장시켜 나가면서 수시직제라도 인원을 확보하는 쪽으로 추진할 것임. 충북 위원장님 말씀 지당하심
- **(서울 김학배 위원장)** 파견 경찰관 정원 관계는 각 위원장님들의 도움을 부탁드립니다. 지난 3월 3일 자치경찰제 정책세미나가 있었음. 당시 논의된 주요 내용 공유드리겠음. 서울 사무국장의 설명 부탁
- **(서울 김성섭 사무국장)** 지난 세미나에 시·도위원장님께서도 대부분 참석해 주셨고, 각 사무국장들께도 요약보고서를 보내 드려서, 내용을 잘 알고 계실 것임
- 대전대학교 이상훈 교수가 이원화 자치경찰제 시범실시를 위한 제도설계 방안을 발표했음. 자치경찰본부장은 당연직 지방공무원 전환, 자치경찰대는 경찰서 관할 구역 2~4개를 묶어서 광역화하여 관할 재조정, 112치안종합상황실은 독점적 운영 불가피하지만 산출물을 공동으로 공유할 수 있는 방향으로 추진. 시·도지사는 집행지휘권, 자치경찰위원회는 정책의결권 중심으로 운영. 자치경찰의 지방공무원 신분전환은 시범운영을 통해 당사자 선택권 존중 및 선택제한제로 운영
- 이어진 토론에서, 원주대학교 남재성 교수는 주민들이 얼마나 자치경찰제를 주도할 수 있는냐가 중요한 키워드로 지적. 이원화 모델이 아닌 자치경찰 중심의 일원화 모델 전환을 형사정책연구원 박준휘 부원장이 제시, 인사권과 예산권의 실질화 강조. 부경대학교 이재원 교수는 ‘자치’에 초점을 둔 자치경찰제 방향 설정, 지방세 중심의 재원 확보 필요하다고 말씀해 주셨음

- 경찰청 이동규 총경은 경찰청도 경찰조직 생존을 위해 혁신적 차원의 일환으로 자치경찰제를 논의하고 있고,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다고 얘기해주었음. 서울과학기술대 강기홍 교수는 경찰청이 국민 생활을 위해 좀 더 내놓아야 한다고 얘기. 지역경찰도 통 큰 결정을 고민해달라고 얘기. 자치경찰제는 경찰청을 넘느냐 못 넘느냐의 문제, 시도자치경찰위원장님들이 뚫뚫 뚫쳐야 한다고 말씀함
- 참석하신 위원장님들께서도 좋은 의견이 많으셔음. 경북 이순동 위원장님은 현재 경찰법은 불완전한 법, 이대로 두면 안되고 ‘시범실시’가 아닌 지금 바로 시행을 얘기, 인천 이병록 위원장님은 ‘이원화’ 작명이 잘못되었으며, ‘정상화 시범실시’로 명칭을 바꿔야한다고 주장. 강원 송승철 위원장님은 자치경찰위원회의 위상에 관심 당부, 경남 김현태 위원장님은 경찰조직을 자치단체 중심으로 구성하는 것을 건의했고 이상훈 교수 답변 순으로 진행되었음
- **(경남 김현태 위원장)** 당시 발언이 불충분했음. 앞으로 자치경찰제는 자치단체가 중심이 되어야 함. 자치경찰이 주민 최전선에 가까이 있어야 하는데, 지구대·파출소가 전환되어야 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지금의 경찰조직을 자치경찰조직으로 보고, 국가경찰에서 필요한 조직은 초광역화하여 별도로 떼어내면 예산이 적게 들지 않겠느냐는 의미의 얘기였음
- 앞으로, 자치경찰이 기본이고, 국가경찰이 예외적인 업무를 맡도록 별도의 조직을 만드는 방향으로 가야 함
- ➡ **(서울 김학배 위원장)** 그렇다면, 지금의 경찰조직이 자치단체에 전속적인 조직으로 되어야 한다는 의미 같음
- **(경기북부 신현기 위원장)** 경찰청에서 생활안전과에 있는 인력들을 자치경찰에 넘겨주겠다는 것이 무슨 의미인지? 이미 자치경찰사무 담당 경찰관들인데 무슨 뜻인지 궁금함

- ➡ **(서울 김성섭 사무국장)** 강기홍 교수의 얘기는, 3개 자치부서의 경찰공무원들을 지자체로 넘겨주겠다는 얘기였고, 경찰청의 진일보한 의견에 자치경찰분과위원들이 놀랐다는 취지임
- ➡ **(충북 남기현 위원장)** 평상시에는 한 명도 안주겠다고 하다가, 3개 부서를 주겠다고 하니 놀랐다는 의미 같음
- ➡ **(경기북부 신현기 위원장)** 생활안전계 인력 극소수임. 이미 우리 위원회의 파트너로 일을 하고 있는데, 이 인원을 위원회 사무국으로 보내겠다는 것인지 - 위원회 사무국 정원이 3명인데 보충해주겠다는 것인지 불분명함
- ➡ **(서울 김성섭 사무국장)** 생활안전, 여성, 교통은 자치경찰사무 담당 경찰관인데, 지방직으로 신분을 전환하여 넘겨주겠다는 의미임
- ➡ **(서울 김학배 위원장)** 자치경찰본부가 신설되고, 본부 아래 3개 기능이 다 이관된다는 의미. 약 2만명 정도가 자치경찰본부로 소속되어 지방직으로 운용할 수 있는 형태로 시범 안이 준비되고 있다고 받아들여지고 있음
- ➡ **(경기북부 신현기 위원장)** 지역경찰을 이관해야 한다고 하니, 그에 대한 대안으로 내놓은 것인지?
- ➡ **(서울 김학배 위원장)** 경찰서 단위까지는 이렇게 하고, 지역경찰은 각 위원장들이 뚝뚝 뭉쳐서 받아와야 함
- ➡ **(충북 남기현 위원장)** 부분적인 토론보다는, 전체적인 줄기를 경찰 기능 분석 결과에 따라 **전국적 · 통일적 사무는 국가사무로 하고, 나머지 모든 사무를 지방사무로 해야한다고 구분**하고 그에 따라 조직과 인력을 재편하면 되는 것임. 자치경찰을 새로 뽑는다고 하면 어느 국민이 납득하겠는지? 그런 측면에서 보면, 자치경찰을 하면 예산이 과다 소요된다는 것은 어불성설. 경찰이나 특정 조직을 위한, 부처이기주의를 위한 자치경찰제 초안을 만들면 국민들이 이해하지 못할 것. 독일의 경우에도 국방 수비 · 테러 · 연방차원 수사 · 요인신변보호 등만 국가경찰이 하고, 나머지 포괄적 경찰 사무는 자치경찰이 수행함. 이렇게 하면 되는 것임. 일본도 관구 경찰국은 7개 뿐. 국가경찰 8천명 수준. 이런 식으로 설계하면 예산 더 들어갈 것 없음.

- **(전북 방춘원 사무국장)** 전북은 사무국장이 대리참석했는데, 꼭 입장을 밝혀야하는 부분 있음.
 - 자치경찰대를 2~3개 기초단체를 묶어 설치하는 것은 절대 안 됨. 기초단위 매칭사업 등 예산 운용 안 됨. 위원장협의회가 함께 뭉쳐서 대응해 나가야 함
- ➡ **(서울 김학배 위원장)** 대부분의 위원장님들이 비슷한 생각일 것임
- **(울산 김태근 위원장)** 원칙적 내용은 다 동의함. 지난 정부에서 코로나 등 예산문제로 이원화 도입 안 됨. 현재 아군이 별로 없는 상황. 정상화든 이원화든 가려면 현실적인 인식을 제대로 하고 가야 함. 최소한 지금 정부가 가지고 있는 로드맵대로 가야 조금이라도 진전되는 것임. 경찰 내부에서 반발하면 그나마 이것이라도 끌고갈 수 없을 것임. 그런 문제까지 고민하면서, 제도개선위원회가 내놓은 안을 현실적으로 판단해 나가야 하지 않을까 생각함
- ➡ **(서울 김학배 위원장)** 옳다고 생각하는 것과 실행하는 것은 또 별개의 문제. 과거에 제도 개선이 힘들었던 경험들이 있음. 울산 위원장님 말씀대로 우리 고집만 하지 말고 현실을 고려하자는 말도 참고해야 할 것 같음
- **(제주 김용구 위원장)** 자치경찰분과위에서 결정된 내용을 알 수 있는지?
 - ➡ **(서울 김학배 위원장)** 정확히 알 수 없지만, 세미나에서 이상훈 교수가 발표한 대로 가지 않을까 생각
 - 3월 3일, 제주는 도의회 업무보고로 참석하지 못했지만, 자치경찰분과위에서 내용은 결정된 것으로 보이는데, 시범운영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을 것임. 내년 1년동안 제주·세종·강원에서 시범운영하는 안을 보면서, 전국적으로 도입할 제도를 집중적으로 절충해나가는 것이 좋지 않을까? 정부 로드맵을 보며, 시범운영을 해나가면서 대응하는 방안을 제시드림
- ➡ **(서울 김학배 위원장)** 좋으신 의견임

- **(서울 김학배 위원장)** 제도발전위원회에서 큰 골격만 마련하고, 세부적인 내용은 제주·세종·강원에서 마련해가야 하는데, 큰 중책을 맡게 되심. 협의 과정에서 경찰청은 좀 더 후퇴된 안을 내놓을 것이고, 우리는 더 강력한 안으로 결집하게 될 것임. 협의회 차원에서 자료를 잘 축적하여 대응해 나가겠음
- **(경남 김현태 위원장)** 현실적으로 우리가 아무리 목소리를 높인들, 현 정부에서 의도하는 대로 움직여질 것임. 하지만, 앞으로 논의를 할 때 가장 중요한 원칙이나 방향만이라도 협의회 차원에서 안을 만들어 - 원칙은 자치경찰이 중심이고 국가경찰이 예외가 되어야 하는 것인데, 이런 부분에 대한 성명서라도 만들어야 하지 않을까?
- ➡ **(서울 김학배 위원장)** 시기를 언제 하느냐도 중요함
 - 자치경찰분과위원회에서 한 번 더 정책세미나를 한다고 할 때, 적어도 그 전에는 나와야 하지 않을까 생각함
- ➡ **(울산 김태근 위원장)** 그 날 분위기를 보면, 이상훈 교수가 정리할 것 같은데, 성명서는 차후의 문제이고, 이상훈 교수나 김선택 위원장님을 회의에 모셔서 위원회 최종보고서에 우리 의견이 담길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 ➡ **(경남 김현태 위원장)** 부산 세미나 때 논의했으면 좋겠음
- ➡ **(부산 정용환 위원장)** 지난 번 김선택 교수가 부산 벡스코 토론회에 왔을 때, 경남 위원장님과 비슷한 얘기를 했음. 국가경찰 중심이 아닌, 지방경찰 중심의 이원화로 가야한다고 했더니, 김선택 교수가 획기적인 안이라고 답했음. 우리 위원회 출범 2년 동안 하나도 바뀐 것 없음. 큰 틀은 잡아두고, 일관된 얘기를 해야 전체 그림이 나옴. 큰 틀만 잡고, 세세한 것 까지 논의할 것까지는 없을 것 같음. 국가에서 시범운영 로드맵을 잡고 있을 것임. 다음에 부산에 오면, 큰 틀에서 논의했으면 함. 지구대·파출소 없이 생활안전과가 넘어오는 것은 아무 의미 없음. 세부적인 내용으로 논의하면 끝이 없음

- **(서울 김학배 위원장)** 곧 경찰제도발전위원회에서 권고안 발표가 있을 예정이고, 한국행정연구원에서 자치경찰 세미나를 제안해 왔음. 대통령실·총리실·국회·행안부 등 범정부적으로 참여하고, 여기에서 발표하는 내용은 시도자치경찰위원장협의회에서 구성해달라는 제안이 들어와 있음. 각 위원회에서 얘기하시는 내용들을 국민들에게 알리는 기회가 주어져 있음. 이런 활동들이 축적되면 우리가 원하는 방향으로 조금씩 나아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함. 경남에서 제안한 안건이 있음
- **(경남 김현태 위원장)** 우리 18개 위원회는 시·도의 특성에 맞는 활동을 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협력적 경쟁관계로 볼 수 있음. 각 위원회에서 은연 중에 특수시책을 공유하지 않으려고 하는 것 같음. 자치경찰제 출범 단계에서 성공시키기 위해서는 정보를 공유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대외적으로 출범 2년이 되는 시점에 홍보할 필요도 있음. 이를 위해 각 위원회에서 그동안 시행했던 시책 중 5가지 정도만 발췌해서 책자를 만들면 홍보와 벤치마킹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함
- **(서울 김학배 위원장)** 다른 의견을 가진 곳 있는지?
- **(부산 정용환 위원장)** 부산은 작년에서 백서를 만들었고, 이번에 백서를 또 만들었음. 거기에 다 들어있음
- **(서울 김성섭 사무국장)** 엇그제 부산에서 권역별 사무국장 회의가 있었는데, 그 때 얘기가 나왔음. 전적으로 공감. 자치경찰제가 획일적인 것을 피해야지, 통일성을 기하는 것은 좋음. MZ세대들이 길면 안읽음. 자칫 백화점식 나열이 안되게, 위원회별 5건으로 하면 90건, 500페이지가 넘음. 정말 국민에게 당당히 내놓을 수 있는 내용만 3건 정도로 줄여서 내놓으면 좋겠음
- **(서울 김학배 위원장)** 경남의 5건 제시는 예시인 것 같음. 사무국장 모임에서 주관해서 총괄과장 편찬위원회를 구성하도록 넘겨주는 것이 어떨지? (모두 동의)

< 위원회별 주요사업 동향 >

- **(대구 설용숙 위원장)** 대구는 청소년과 학생들의 관심을 높이기 위해 폴리스 틴·키즈를 3회차 운영하고 있음. 대구는 사무국에 장학사 1명이 파견 중. 학교폭력이 이슈가 되고 있어, 학교폭력 예방에 초점을 맞춰 다양한 프로그램을 준비하고 있음
- **(경기북부 신현기 위원장)** 도의회 안행위 행정감사 때 늘 지적 되는 것이 ‘홍보가 잘 안된다’는 부분임. 홍보 차원에서 대학생 30명을 서포터즈로 운영했는데, 이번에 SNS 홍보단을 70명으로 확대하여 홍보를 추진하는 내용임. 경찰행정학과 교수님 지원을 받고, 관련 예산 및 표창장 등으로 혜택 마련 중
- **(충북 남기현 위원장)** 충북 정책과장이 본청 교통국에서 승진해 왔음. 형식과 실질을 공유하고, 즉시 시행할 수 있는 내용을 협의하기 위한 교통 간담회를 개최 중임
- **(서울 김학배 위원장)** 장시간 회의에 감사. 환절기 건강 유의. 자치경찰 발전을 위해 힘을 모아주기 바람

<15:08, 종료>